

제14차 국제형태학 심포지엄

● 일시 : 9월10일~12일 ● 장소 : 중국 북경

지난 9월10일부터 3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4차 국제형태학심포지엄엔 30여개국에서 6백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선 28명이 참가하여 2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연세의대 박경아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진행을 맡아 인기를 끌었고 가톨릭의대 한승호교수 등이 논문을 발표했으며 아주대 이제만교수가 「손금에 의한 유전진단」을 포스터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李 興 植

〈서울대수의과대 교수/수의해부〉

「죽의 장막」에 두껍게 드리우고 있던 대나무 밭을 활짝 열어제치고 개혁과 개방을 과감히 시도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중국. 그것도 3천년 고도 북경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3일간 국제형태학심포지엄(International on morphological science=ISMS)이 개최된 것은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에 국제형태학심포지엄이 개

최된 베이징 콘티넨탈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는 1990년 11월 북경아시안게임 개최시 선수촌이었던 ‘아운촌’ 중앙에 자리잡은 북경 유일의 국제회의장으로 이미 국제의원연맹 총회, 유엔여성대회, 국제금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되었던 곳으로 요사이도 하루에 보통 4~5건씩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곳이다.

30개국서 6백여명 참석

이런 좋은 시설에서 열린 이번 ISMS대회는 14번째 회의로 3년에 한번 개최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라틴계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 이번에 중국 주도로 개최되므로써 앞으로 이 모임의 성격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올해는 6백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30개국에서 2백여명, 중국에서 4백여명 등 6백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8명이 참가하여 각 분야에 걸쳐 2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번 회의에 가장 많은 학자가 참가한 나라는 일본으로 35명이 참가하여 3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아르헨티나에서는 18명이 참가하여 30편의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나라가 참가자 수로는 두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가한 국가였고 발표연제로는 세번째여서 그간에 신장된 국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발표된 총 연제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신경과학분야 33%, 육안해부학분야 27%,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분야 20%, 발생학과 생식의학분야 15%, 기타 15%로 신경과학분야가 어떤 분야보다도 단연 우세하여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집중 연구하고 있는 연구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었고 대체로 각 분야의 많은 논문이 형태학과 기능을 연관지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대회 첫날인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은 중국해부학회 이사장인 Xu Qunyuan박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ISMS 대회준비위원장인 Xue Shepu교수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중국위생부 Zhu Qingsheng장관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고 중국과학기술위원회 Zhu Jinning부장이 중국과학기술단체를 대신하여 격려사를 하였으며 유럽해부학회 Motta회장과 미국해부학회 Yate회장이 축사를 하여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개회식에 이어 계속된 오전 특별 강연에서는 이탈리아 로마의과대학 Motta교수의 '새로운 기법에 의한 난소, 난관, 자궁 등 생식기관의 삼차원적 영상분석'을 비롯하여 5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1시부터 시작된 오후 특별강연에서는 벨기에 루벤대학 Dhem교수의 '막내골화에 관한 새로운 지견'을 비롯하여 8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대한해부학회 이사장인 연세의대 정인혁교수가 발표한 '안면신경과 전정달팽이 신경의 해부학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임상치료를 위한 해부학적 자료 제공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홍콩의 대 Wong교수가 발표한 '전립샘에 미치는 인슐린 유사성장물질의 효과'는 남성 부속샘이 전립샘이 연령 증가에 따라 비대되는 기전을 증명하는 기초연구였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의를 하였다.

학술대회 둘째날인 9월 11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심포지엄과 학술발표가 병행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의 오전 주제는 '생식기관에 관한 미세 해부학의 새로운 경향'이었으며 오후 주제는 '말초신경 손상 후 재생 과정의 형태학적 및 기능적 분석'이었다.

연세의대 박경아교수 진행맡아

오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8개 논문 중 프랑스 상트페레의학연구소 Dadoune박사는 '사람 정자 분화과정 중에서 볼 수 있는 정자의 형태학적 및 기능적 변화'에서 각종 환경요인에 의한 금세기 남성의 정자 활성화 기능이 지난 세기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여 현대 인

류 최대의 관심사인 '깨끗한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대한해부학회 총무이사인 연세의대 박경아교수의 유창한 영어로 진행된 오후 심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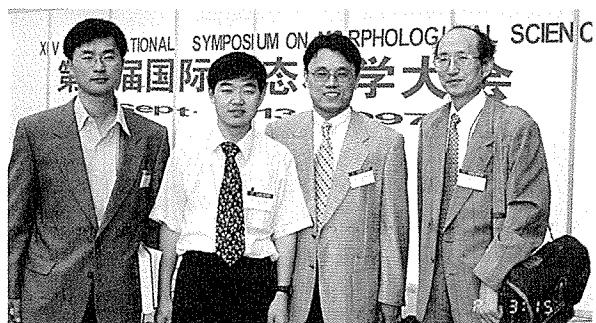
지엄에서는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스웨덴 카로린스카 신경과학연구소 Zhang박사가 발표한 '말초신경손상에 따른 척수신경절 내 각종 신경전달물질의 변화와 통증과의 연관성'은 통증의 관문이론과 연관되어 청중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논의를 야기시켰다.

한편 학술발표는 전공분야별로 각기 다른 3개의 세미나룸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자는 특히 관심있는 테마에만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육안해부학분야에서는 특기할 만한 발표로 일본 토포의과대학 Kiyoshi 교수가 발표한 '후각계통의 신경회로'였는데 지금까지의 orbital thalamus에 이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한편 가톨릭의대 한승호교수가 삼차원스캐너법과 모아레등고선법을 비교 발표한 '두개골의 체질인류학적 삼차원 분석'은 두개골 분석지표를 제안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청중의 흥미를 끌었다.

세포학 및 분자생물학분야에서는 이탈리아 볼로냐의과대학 Carinci 교수가 발표한 '구순열 및 구개열 원인 규명을 위한 섬유모세포의 TGF유전인자 발현'은 일반적으로



▲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4차 국제형태학심포지엄 참석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필자(우측)

신생아 6백명당 1명 꿀로 구순열과 구개열 환자가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포스터展서 「손금진단법」人氣

셋째날인 9월 12일에도 전날과 같이 심포지엄과 학술발표가 분야별로 있었는데 이날 심포지엄 주제는 'In situ hybridization'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산슈의과대학 Nagata교수가 '형태학연구에서 ISH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에 이어 8명의 연자가 주제별 연제를 발표하였는데 일본인과 미국인이 각각 4개 연제를 발표하여 미국과 일본의 독무대가 되었다.

이 날 일반연제 발표는 주로 신경과학분야 중에서도 신경전도로에 관한 발표가 많았는데 특히 일본의과대학의 Albert교수가 철갑상어의 경우 시상종뇌로가 주요한 시각으로 한 발표는 척추동물의 시각계통을 규명하는 흥미있는 발표였다.

이번 형태학심포지엄에서 포스터 발표는 컨벤션센터 1층 제4전시실에서 3일간 실시되었다.

포스터전시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이스라엘 브로스의과대학 Coleman교수가 창안한 '효과적인 사체방부법'이었다. Coleman교수

는 이집트 미이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부법을 개발하였다는데 지금 까지 10%로 사용해오던 포르말린 용액을 60% 소금물에 단지 1.5% 만 혼합하여 사용해도 사체를 6개 월 이상 장기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해부용 재료채취도 충분함을 입증하여 의과대학 실습용 사체보존에 요긴한 방법으로 참석자 모두의 대단한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아주의대 이제만교수가 발표한 '손금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은 유전질환진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제공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많은 외국인 학자들은 손금이 그려진 포스터에 직접 자신의 손을 갖다 맞추고 비교해 보는 모습도 보여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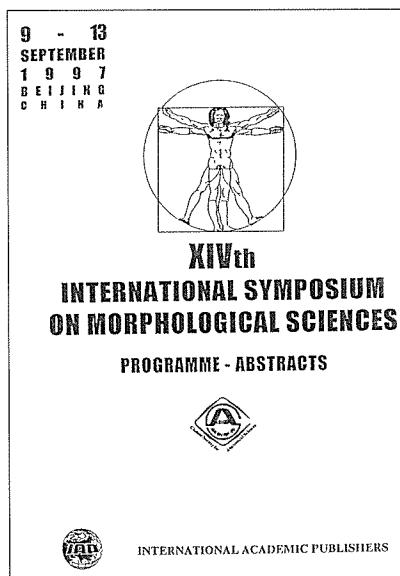
필자가 발표한 '한국재래산양 삼차신경절과 미주신경절 내 calcium binding protein과 신경전달물질의 공존관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중국인 학자가 큰 관심을 보여 포스터 하나 하나를 사진찍고 질의하는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공동 연구의 가능성 여부를 협의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제학술회의를 처음 주관한 중국 해부학회지만 그런대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은 높이 칭송할 만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행사에는 옥의 티처럼 부족함이 있어 언제나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행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하나가 호텔 체크인이었다. 물론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로 인해 회의장소가 갑자기 바뀐 탓도 있지만 계약금까지 미리 송금하였음에도 방 배정이 안되어 몇 시간씩 로비에서 서성대고 기다려야

했던 미국인과 프랑스인, 한국인 학자 등이 여려명 있었다는 점은 대회장을 변경하면서 인수 인계 사무를 소홀히 한 대회본부의 실수에 기인된 것이라 이해하더라도 국제대회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한편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중심'이라는 '중화사상' 탓인지 이미 정해진 순서를 무시한 채 연자 순서를 마구 바꾸는 것은 애교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일반학술발표가 아닌 심포지엄임에도 불구하고 질의 응답시간이 너무 짧아 열띤 토의를 갑자기 중지할 수 밖에 없었던 점들은 꽤 아쉬운 일이었다.

15차 회의는 2000년 일본서



더구나 휴식시간을 위해 미리 음료를 준비하지 않고 회의가 끝난 후 학자들이 로비에서 서성거려야만 비로소 음료를 준비하는 탓으로 미처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속개된 회의에 쫓기듯이 참석해야만 했던 일 따위는 중국인 특유의 '만만디' 탓일지 모르나 국제회의로써 예의는 낙제점이었던 것 같다.

포스터 전시의 경우 불평이 아주 많았는데 그것은 포스터 전시실과 회의실이 각기 1층과 5층이었기 때문에 1층과 5층을 오르내려야만 했던 일 때문이다. 나아가서 포스터 전시의 경우 일정 시간을 정해 발표자가 대기하여 관람자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 관심있는 포스터 내용을 질의하고 싶어도 질의할 수 없었던 불편은 주최측의 무성의, 무감각을 탓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학회는 모름지기 '국력의 전시장'이라지만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높아진 국가위상과 생명과학의 큰 발전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의 경우 선진 외국의 학자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오히려 더 충실히 발표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수준이 구미선진국의 수준과 대등한 수준이거나 보다 월등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아주 가슴 뿌듯한 일이었다. 그러나 현 수준을 보다 더 높이고 지금 국내에서 거창하게 고양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가 결코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당국과 관련기관의 기초과학연구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기초과학 없는 응용과학은 사상누각일 뿐 아니라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 일본에서 개최될 15차 국제형태학심포지엄에는 14차보다 한 차원 높은 학술발표가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극히 제한된 주마간산식 참관기를 마무리한다. ⑦